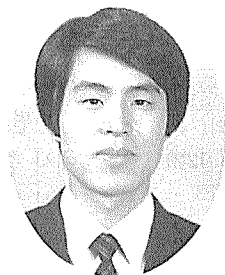


'98년 석유산업의 회고와 '99년 전망



문 선 목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 사무관 〉

1. '98년 석유산업의 변화

우리나라가 심각한 외환·금융위기로 인하여 IMF로부터 구제금융지원을 받은지 1년이 지난 지금 환율변동 등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한 석유산업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성장을 둔화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석유소비는 크게 감소하고 석유시설에 대한 신규투자는 중단된 상태이며 국내·외 기업간의 M&A 등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우선, 97년말 외환·금융위기 발생으로 유전스L/C개설 및 해외차입을 통한 연지급방식의 원유도입이 어려워져서 일부 정유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으나, 정부의 지원조치 등으로 석유수급상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석유수급면에서 보면 98년 1-9월중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3.1% 감소하였으며 98년간으로도 12.2% 감소할 전망이다. 정유사 전체적으로는 환화에 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정유사의 정상가동으로 생산이 1-9월간 전년대비 4.3%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내수시장 소비감소, 중국의 금수조치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정제마진 악화로 10월들어 일부 감산조업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석유소비 감소 및 생산감소에 따라 원유도입도 줄어들었는데, 금년 1-9월중 5.4%가 감소하였으며, 연간으로도 작년의 873백만배럴에서 금년은 830백만배럴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물시장(Spot Market)에서의 도입이 줄어들어 아프리카로부터의 도입이 많이 줄었다.

국내유가는 국제유가의 하향안정화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및 세금인상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휘발유가격의 경우 IMF 관리체제 이전인 97년 11월에 리터당 820원(교통세 414원)이던 것이 98년 10월에는 평균적으로 1,125원(교통세 691원)으로 상승한 것이다.

또한, 국내 정유업계는 98년 2월 대기업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조직 및 인력 축소조정, 경영효율화 및 재무구조 건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특히, 5대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대정유가 경영난에 빠진 한화

에너지를 인수키로 하고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석유산업의 대외개방과 함께 현대정유 및 쌍용정유가 지분 매각 등을 통하여 산유국으로부터의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98년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1997	1998.1-9	1998(전망)
원유도입(백만배럴)	873(21.0)	603(-5.4)	830내외(-4.9)
석유수요(천B/D)	748.6(3.8)	494.7(-13.1)	697.4(-12.2)
정제능력(천B/D)	2,438	2,438	2,438
국내유가(휘발유, 원/ℓ)	820(97.11월)	1,125(98.10월)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2. '98년 주요 석유정책에 대한 평가

(1) 외환·금융위기하의 원유도입 원활화시책

국내 정유사는 97년 10월이전까지는 원유수입시에 수입대금의 95% 이상을 연지급 방식으로 결제하여 왔으나, 97년 11월부터 국내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외화차입이 곤란하여 연지급수입이 축소되고 현금결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자금난이 심화되었다. 특히, 한화에너지는 자금난의 상대적인 심화로 원유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여 35% 수준의 최저가동율만을 유지해 왔다.

정부에서는 97년 12월 이후 정유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원유도입을 원활케 하고자 특소세(교통세) 및 수입부과금 징수유예, 민간 석유비축의무 하향조정 및 순수비축분(6일분)에 대한 부과금 면제 시행, 금융권의 긴급자금지원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97년 12월 24일부터 산업자원부, 석유개발공사, 정유5사와 공동으로 원유도입안정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정유사의 유전스 L/C 개설 등의 금융상황과 원유도입, 처리, 재고현황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등 석유

수급의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제반 조치로 원유도입 및 국내 석유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한화에너지는 최저가동수준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대리점 및 주유소의 운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조직축소 및 사업부문 매각 등 기업 및 그룹차원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편, 중동의존도가 74%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동산유국과의 자원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비록 국제석유시장이 안정기이기는 하지만 정상시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하여 비상시의 석유도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98년 11월에는 사우디, 오만, 이집트 등 중동 4개국에 산업자원부장관을 단장으로 민·관 공동의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하였다.

(2) 석유산업의 조기 대외개방

정부는 IMF체제 이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외국인투자의 조기유치와 국내정유업계의 구조조정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조속히 이루고자 98년중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전면 개방하였다. 이에따라 주유소업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재경부고시)을 개정하여 5월 8일부터 개방하였으며, 석유정제업은 석유사업법 개정(9.23 공포)으로 10월 1일부터 신규진입이 자유화되고 외국인 투자도 100% 개방되었다.

석유사업의 조기 대외개방은 작년말 외환·금융위기 이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외자를 도입하여 부족한 자금난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조속히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5월 8일 대외개방된 주유소업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석유수요 감소 및 주유소 판매실적 악화 등으로 아직까지 외국기업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외국의 석유메이저인 영국의 SHELL, BP 및 미국의 EXXON, MOBIL 등이 국내 대형 석유대리점

과 주유소를 대상으로 국내시장 진출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 향후 외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정제업의 경우는 10월1일부터 100% 대외개방되어 향후 외국기업과의 외자유치 협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현대정유의 경우 산유국 국영회사(UAE의 IPIC)가 50% 지분참여(약 5억불)키로 합의(10.20)하였으며, 쌍용정유는 그룹 경영난 해소의 일환으로 사우디 ARAMCO사 등에의 지분(쌍용양회 28.4%)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그동안 해외 석유매이저, 산유국 국영석유사 및 국제투자전문회사 등과 매각협상을 벌여왔으나, 최근 5대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대정유에서 인수키로 하였다.(8.31 가계약 체결)

(3) 유가자유화, 석유 직거래 허용 및 석유류 유통 질서 확립

'97년 1월부터 국내유가결정이 자유화되어 정유사 및 주유소 등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가격 결정을 해왔으며 과도기적인 조치로 '98년 2월까지 국내유가변동 사전보고제를 실시하여 왔다. 유가 자유화이후로 국내석유시장에서의 급격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역별, 주유소별로 다양한 가격이 형성되어 유가자유화가 긍정적인 것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98년 1월부터는 그동안의 「정유사-대리점-주유소」에 이르는 3단계 유통경로가 자율화되어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직거래가 허용되었다.

최근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정유업계의 과잉정제능력 및 판매경쟁, 석유제품의 소비감소 및 수출여건 악화로 일부 유종의 덩핑이 간헐적으로 발생,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98년 7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 내용은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석유사업자 준수지침 제정 시행으로 석유산업체의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자율 규제하고, 각 정유사·대리점의 일반판매소 직판거래에

대한 월별 보고제도를 운용하며, 석유관련 협회의 중앙회 및 지회에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하는 것이다.

(4) 난방유의 신규 보급

정부는 경유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시책에 따른 비수송용 경유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적정화하고, 등·경유 수급상의 애로를 개선하며 석유류 수입절감을 위하여 98년 8월1일부터 난방유를 신규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등유 혹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던 가정용·업무용 및 중소기업용 보일러 소비자는 품질이 보장된 보일러등유를 사용하게 되는 한편, 팬히터·스토브 등 실내용 보조난방기기 소비자는 현행 등유보다 유향함량이 낮아지는 등 품질이 고급화된 실내등유를 사용하게 되며, 트럭·경유차량 등 수송용으로는 현행 경유를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난방유의 신규공급으로 비수송용 경유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적정화하고, 등·경유 수급상의 만성적 과부족 현상을 개선하며 석유류의 수입절감효과도 거두게 된 반면, 경유 교통세의 인상으로 경유가격이 높아져 등·경유간 가격차가 확대될 경우, 가격차의 및 비용절감을 노린 혼·전용 가능성도 우려되어 난방용 등유에 착색제 및 식별제를 첨가하여 판별이 용이토록 하였으며,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혼·전용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5) 석유비축

정부는 석유위기시의 대책으로 정부비축시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98년 5월 경기도 용인에 제품비축시설 250만배럴을 준공하고, 여수·곡성 등 2개 기지도 마무리단계에 있다. 그러나, 98년에는 환율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 및 비축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 적기확보 어

려움 등으로 제 2·3차 정부비축계획을 조정하여('98. 5) 비축시설 건설 및 비축유 투입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계획중료기간을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연장하고 시설 건설 규모 및 소요예산을 조정한 바 있다.

석유정제업자, 석유 및 LPG 수입사 등 총 9개 민간업체에 대하여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33일분(LPG 17일분)의 비축의무를 부과하였고, 공업용 원료의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LPG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 3개 업체에 대하여도 비축의무량을 결정·고시하였다.

3. '99년 석유산업의 새로운 여건 전망

(1) 국제석유시장의 안정화 및 구도 변화

99년에도 세계석유시장이 98년에 이어 공급과잉상황이 지속되고 저유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석유수급은 98년보다는 다소 공급과잉이 해소된 70만 b/d의 공급과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유가는 세계경기의 다소 회복과 저유가에 따른 석유생산 위축으로 석유공급 과잉규모가 점차 줄어들어 금년보다 약 1~2\$/B내외 상승한 13~15\$/B대(Dubai 기준)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아시아경제 회복 추이, 동절기 한파 여부, OPEC 생산억제 지속 여부, 이라크 석유수출 규모 등에 따라 약 1\$/B내외의 추가하락 또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세계석유수급 및 국제유가 전망

	1998	1999
세계석유 공급초과(백만B/D)	1.0	0.7
국제유가(Dubai 기준, \$/B)	12~13	13~15

또한, 국제석유시장이 공급초과현상을 보임에 따라 저

유가상황이 지속되고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에서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되어 향후에는 안정적인 석유·가스공급의 확보이외에 석유산업의 효율성·수익성의 확보도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2) 국내·외 석유수급상황의 변화

외환·금융위기 이후 국내 석유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난 10년간(88~97 연평균) 12.6%의 증가율을 보였던 국내 석유수요가 98년에는 12.2% 감소하였는데, 99년 국내 석유수요는 98년의 대폭감소에서 벗어나 2% 내외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정제시설능력의 국내수요 초과 현상은 2000년대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정제시설능력은 2,438천B/D로서 '97수요(2,175천B/D)의 112.1%, 98수요(1,911천B/D)의 127.6%에 해당된다.

한편, 2000년대초 아시아지역 석유수요 증가는 3% 수준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석유수요 증가율

1998	1999~2000	2001~2005	2006~2010
1.4%	2.8%	3.4%	3.2%

자료 :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3) 석유산업의 자유화·대외개방 및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

'99년에는 정제업 신규진입 자유화(98.10), 정제업 및 주유소업 대외개방(98.5~10),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인수, 신정부의 대폭적인 규제폐지 및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자유화 및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의 발달과 국가간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산업 및 기업경영에서의 글로벌화의 진전과 국경을 넘어선 기업간의 M&A 활성화로 그동안 폐쇄체제하에서의 국내산업 보호, 국가전략산업 육성의미는 퇴색하고 세계화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4. '99년 이후 석유정책 방향

위와 같은 여건변화 속에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석유정책방향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둘 것이다.

우선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중장기 수급전망에 입각한 합리적인 투자를 실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여 IMF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 시장기능에 의한 적정한 석유가격 결정을 정착시키고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업의 건실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소비생활 및 산업의 전부분에 걸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로, 시장기능을 육성시키되 정부는 법규 및 제도를 통하여 공정한 경쟁여건 및 정보, 물류체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상시의 수급안정장치를 유지할 것이다.

(1) 석유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

우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제구조조정과 함께 석유산업에서도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내기업간의 M&A로서 5대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인수가 본격화 될 것이다. 현대정유는 한화에너지를 인수키로 지난 8월 31

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관련 금융기관에 단기부채의 장기전환 및 우대금리 적용, 일부 차입금의 출자전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의 지원조치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현대정유와 한화에너지의 운영통합 및 한화에너지프라자 흡수합병을 마무리한 후 99년중 현대정유와 한화에너지와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외에도 정부는 국내정유업체의 구조효율화 및 투자합리화를 위하여 업계간 M&A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월 1일부터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이 100% 이루어짐으로써 99년에는 외국인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다. 현대정유는 지난 10월 20일 산유국 국영회사(UAE의 국제투자전문회사인 IPIC)와 지분 50% 인수에 합의하고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성사될 경우 약 5억불의 외자가 유치될 전망이다. 쌍용정유도 그룹 구조조정 차원에서 쌍용양회 보유지분(28.4%)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무구조가 부실한 정유사의 사업축소, 계열사 처분, 부동산 매각 등 개별기업의 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정유산업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석유수요침체기의 여유정제시설을 활용하여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중국 등과의 합작투자 및 해외수출 증대, 한국내 석유시장 개설 등 우리 석유산업이 동북아지역에서의 석유산업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2) 석유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른 투자합리화 및 고도화시설 확충

석유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석유수급 전망에 따른 적정한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제시설능력으로 국내수요 충족이 가능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제시설의 고도화, 가동률 제고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향후 석유수요의 지속적 신장에

따라 2000년대 후반은 국내·외 석유수요 전망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설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분간 석유수요는 그간의 고신장 추세에서 저신장추세로 전환되어 연평균 2~3%대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석유정제업 신규진입 자유화에 대응하여 국내 및 해외수요에 맞는 정제시설의 투자합리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내수요 대비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2006년이 후에 대비한 정제시설 투자확충시 중복·과잉투자가 없도록 사전 동향점검 및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정유사의 공급능력 및 석유수요 전망

(단위 : 천B/D)

	1996	1997	1998	1999	2000대중반
국내수요(A)	1,976	2,175	1,911	1,949	2,438
공급능력(B)	1,985	2,438	2,438	2,438	2,438
공급초과(B-A)	9	263	527	489	0

국내 석유소비구조는 국민생활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 시책 등으로 경질화(70%)·저유황화(83%)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석유수요의 경질화와 환경기준 강화에 대응하여 환경친화형 고도화시설을 확충하고 석유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석유정제품의 연산품질 특성으로 유종별 생산구조와 소비구조간에 차이가 커져 발생하는 유종별 수급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중유화력 발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경·중유를 혼합하는 형태의 B-A유 공급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3) 석유가격체계 합리화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시장기능에 의한 적절한 석유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97년 1월부터 실시된 국내석유가격의 완전자유화를 정착시키되 유가동향모니터링 등 사후적 감시기능 등을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한편,

석유가격 수준 및 유종별 가격체계를 세금조정 등을 통하여 OECD 비산유국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휘발유의 세금비중이 74%이고 경유의 세금비중이 43%인 것을 비롯하여 석유류에 대한 세금 및 정부부과금은 석유도입단계에서의 관세 및 수입부과금과 판매단계의 특소세(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복잡하게 부과되고 있다. 석유류 세금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재 석유류에 편중되어 복잡하게 부과되고 있는 세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유종간·에너지원별 합리적인 세율조정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석유유통시장의 자유화와 대외개방에 따라 석유유통시장에서의 덤핑 및 품질저하제품의 유통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석유사업자의 유통질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유통질서 저해행위 신고센터 및 품질검사 등을 활용하여 감시·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석유물류 개선 및 정보화의 추진

전국송유관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송유관(성남-영종도간 116km)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영종도 구간(23km)은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유 공급을 위한 유일한 시설로서, 해저구간으로 도시가스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등과 병행건설하여야 하므로 2000년 7월 완공할 목표로 우선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수송시 현재 선박중심의 석유수송체계를 요금할인을 적용 등을 통해 송유관수송체계로 적극 유도하여 송유관이용율을 제고함으로써(98년 38%→99년 45%)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한편, 98년 해외관련 석유정보시스템을 개발한데 이어 99년에는 석유위기대응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부-유관기관-업계를 연결하는 석유정보망을 구축하고(소요예산

99년 1,439백만원), 시스템 개발후에는 DB확장 및 외국 석유관련 DB업체들과 상호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99~2001년간 석유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석유유통업계의 POS시스템 구축등 정보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5) 석유위기시의 안정적인 석유수급체계 구축

석유위기에 대비 98년 현재 정부 및 민간의 비축수준 58일분을 2006년까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요구하는 국제적 수준인 90일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99년중 원유 및 제품 32백만배럴의 정부비축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석유비축 수준 전망

(단위 : 백만B)

	1998	2003	2006
총비축수준	119	158	227
(일본)	58	77	90

이제 석유산업이 대외개방된 상태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석유수급의 안정을 이룩해야 하고 종합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우선, 주요 산유국과의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정례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산유국 국영석유사 및 석유메이저와의 합작 확대, 장기계약 원유도입의 적정수준 유지(70%내외), 선물시장 활용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UAE, 노르웨이 등 산유국과의 석유공동비축을 추진하고 석유위기시 비축유 상호용통이 가능하도록 일본 등 주요 소비국 및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중동지역 비상사태 발생, 국내전쟁, 외환·금융위기등 제반요인에 의한 석유위기를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원화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5. 맺는말

99년은 우리 석유산업이 IMF경제위기를 극복해가는 어려움속에서 대외개방과 규제완화의 커다란 변화와 함께 구조조정을 추진해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석유산업은 그동안의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과 세계의 주요 석유메이저들로 눈을 돌려야 한다. 기업들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구축, 정보제공, 여건 및 제도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석유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석유수급 안정의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유화, 대외개방, 구조조정의 흐름속에서도 비상시를 대비한 석유수급 안정을 확보하는 제도 및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석유수요 침체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000년대에도 주도적 에너지로서 기능할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석유산업을 우리의 기간산업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

금 · 용 · 용 · 어

한은, 경제·금융용어 쉬운 말로 권장

한국은행은 경제·금융용어 가운데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너무 어려운 용어 152개를 쉬운말로 바꿔쓰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한은이 제시한 쉬운 용어(괄호안)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 △거래선(거래처) △경상가격(당해년·당분기 가격) △경상GNP(명목GNP) △구좌(계좌) △내용연수(사용가능연수) △내입하다(일부를 갖다) △당발물(당일발행회사채) △대부(대출) △대전(대금) △대출기일(대출만기일) △무부리(무이자) △10년물(10년만기) △부리하다(이자를 붙여주다) △부보하다(보함에 들다) △불변가격(기준년가격) △불변GNP(실질GNP) △엔고(엔화강세) △연지금수입(외상수입) △사사오임(반올림) △외환보유고(외환보유액) △점두거래(장외거래) △지불(지급) △추심(받아냄) △ABS(자산담보부증권) △블루칩(대형우량주) △캐시플로(현금흐름)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 △트레이션(평균자금회수기간) △허머니(투기성 단기자금) △인플레이(물가상승) △L/C오픈(신용장 개설) △롱포지션(매입초과포지션) △이머징마켓(신흥시장)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네고(수출환어음매입의뢰) △오픈(선택권) △리스크헤지(위험회피)